보헤미안, ‘두번째달’로 상상 여행을 떠나다

2006년 한국대중음악상의 이변, 에스닉 퓨전 그룹 ‘두번째달’

이 선 실 · 방송작가

3개 부문 수상 이변 낳은 그룹 '두번째달'

지난 3월 14일, 한 해의 대중음악계를 정리하는 대중음악상 시상식이 열렸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대중음악상은, 인기 가수들의 잔치인 기존의 연말 가요제와는 달리 음악성을 앞세운 앨범과 가수들이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한국 음악계의 질적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대안적 시상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런 대안적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수상 결과는 아무도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던 이변 그 자체였다. '두번째달'이라는 이름도 생소한 그룹이 올해의 앨범, 올해의 신인, 최우수 재즈&크로스오버 앨범 등 3개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한 것이다.

'올해의 음반' 심사평에는 수상 결과에 대한 대중음악계의 충격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수완이 좋은 제작자였다면 아마도 2005년 현재의 한국 대중음악 상황에서 두번째달의 앨범을 내놓는 것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두 번째 달의 데뷔 앨범 「두번째달」은 일곱 멤버로 구성된 대식구가, 생소하기만한 켈틱 민요를 차용하여, 수록곡의 대부분을 연주곡으로 구성한 '상업적 자살' 과도 같은 작품이기 때문이다. 물론 앨범 「두번째달」이, 분명하다 못해 처절하기까지 한, 그 태생적 한계 상황을 넘어 대중에게 접근할 수 있게 된 배경에 인기 TV 드라마의 유명세가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같은 사실이 이 앨범의 가치를 훼손시키지는 못한다. 오히려 ("이런 음악이 잘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영리한 음악방송들이 외면한 인디 음악의 가능성을 TV 드라마가 대신 확인시켜 주었다는 사실을 탄식해야 함이 옳을 것이다. 음악에 대한 그 태도의 측면에서 볼 때, 이 앨범은 2005년 한국 대중음악계가 배태한 가장 도발적이고 용감한 작품의 지위를 스스로 획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 대중음악평론가 박은석

'두번째달'은 사실 대중들에게 그 이름만큼 생소한 그룹은 아니다. 몇 년 전 '아일랜드 폐인'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내며 마니아들의 절대적 지지를 얻었던 드라마 〈아일랜드〉의 메인테마와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궁〉 사운드 트랙으로 대중들의 귀에 이미 친숙한 그룹이다.

'두번째달'은 결성 당시 멤버 대부분이 이미 영화 및 광고, 드라마, 뮤지컬 음악 등을 통해 음악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기타, 만돌린 등을 맡고 있는 그룹의 리더 김현보는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 〈수취인불명〉, 〈동해물과 백두산이〉 등의 작곡, 편곡, 세션에 참여했으며, 100

여 편의 CF 음악을 작곡, 편곡한 실력파다. 베이스의 박진우는 영화 〈오버 더 레인보우〉, 〈아유레디?〉 등 다수의 영화 음악 외에 50여 편의 CF 음악과 드라마 음악을 통해 대중들에게 익숙해 있었고, 어쿠스틱 피아노와 키보드를 담당하는 박혜리 역시 전국 CCM 대회 작곡상을 수상하였고, 다수의 드라마 음악 제작에 참여했다. 그런가 하면 최진경은 뮤지컬 〈드라큐라〉,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카르멘〉,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의 작 · 편곡 작업 외에 단편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의 음악작업을 담당했다.

상업적 음악을 수동적으로 만들어내는 데 염증을 느꼈던 김현보는 색다른 음악을 만들고 싶었고, 광고음악 회사에서 함께 작업하던 박진우, 박혜리, 최진경과 의기투합해 '두번째달'을 결성했다. 이후 뛰어난 연주 실력을 자랑하던 백선열, 조윤정과 아일랜드 출신의 보컬 린다 컬린이 합류하면서 2004년 7인조 밴드로 정식 출범하게 된다.

'두번째달'은 사실 대중들에게 그 이름만큼 생소한 그룹은 아니다. 몇 년 전 '아일랜드 페인'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내며 마니아들의 절대적 지지를 얻었던 드라마 〈아일랜드〉의 메인테마와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궁〉 사운드 트랙으로 대중들의 귀에 이미 친숙한 그룹이다. '두번째달'은 결성 당시 멤버 대부분이 이미 영화 및 광고, 드라마, 뮤지컬 음악 등을 통해 음악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이들이 내세운 음악적 컨셉은 에스닉 퓨전(ethnic fusion)이다. '두번째달'은 데뷔 앨범을 통해 켈틱 음악, 중동, 남미, 아프리카의 음악을 고루 녹여내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로 에스닉 퓨전 시도

이들이 내세운 음악적 컨셉은 에스닉 퓨전(ethnic fusion)이다. 에스닉 퓨전은 말 그대로 '세계 여러 나라의 민속 음악을 다양한 접근법으로 모든 이들에게 친근하게 들려주는' 장르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에스닉 퓨전은, 크게 보면 뉴에이지 음악에 속한다. 무드음악, 환경음악이라고도 불리는 뉴에이지 뮤직은 흔히 듣기에 부담 없고 청소년들의 정서에도 해가 되지 않는 무공해 음악으로 알려져 있다. 조지 윈스턴, 유키 구라모토, 시크릿 가든으로 대표되는 비트가 없는 서정성 깊은 음악을 일컫지만, 사실 뉴에이지의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

1980년대 초, 세계적으로 고전음악의 위선성과 대중음악의 경박성을 넘어선 새로운 음악에 대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들 음악은 고전음악의 난해함과 대중음악의 기계음을 탈피한 자연의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음악 장르로, 감각적인 록 음악에 반감을 느낀 음악가들이 동양의 신비적이고 즉흥적인 음악에 매료되어 고전음악이나 포크음악에서 사용되는 어쿠스틱 악기나 신디사이저와 같은 최첨단 전자악기를 이용해 동서양의 교감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면서 대중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얻었다.

뉴에이지는 그 음악적 뿌리에 따라 하위 장르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

쿠스틱 계열의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제너럴(General), 각 나라나 민족의 토속음악들을 현대음악과 접목시킨 제3세계 음악(World music), 클래식의 경직된 틀을 벗어나 대중에게 어필하는 장르 파괴의 크로스오버(Cross Over), 동양적인 참선사상을 바탕으로 한 치유음악(Meditation), 자연의 소리를 바탕으로 한 환경음악, 그 밖에 전자 음악 등 다양한 장르로 세분된다.

'두번째달' 이 지향하는 에스닉 퓨전은 이 중에서도 월드 뮤직과 크로스오버를 접목시킨 또 하나의 새로운 장르로 아일랜드 출신의 그룹 '치프턴스' 가 대표적이다.

'치프턴스' 는 켈틱 음악을 기반으로 자메이카의 레게, 텍스-멕스 음악(멕시코 음악을 섞은 미국 음악), 중국 전통 음악 등을 섞어 월드 와이드 뮤직을 추구하고 있다. '두번째달' 은 데뷔 앨범을 통해 켈틱 음악, 중동, 남미, 아프리카의 음악을 고루 녹여내고 있다.

그룹의 리더 김현보는 민속 음악이야말로 모든 음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한다.

"세계의 민속 음악에 정통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민속 음악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식대로 재창조를 하는 것이죠."

세계 민속 음악을 바탕으로 즐겁고 쉬운 음악을 해보자는 '두번째달' 민속 음악에 대한 그들 나름의 재창조는 악기 편성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기타, 베이스, 키보드, 바이올린, 드럼은 일반 밴드와 다를 바 없다. 그러나 보통 이들의 공연에 등장하는 악기는 서른 가지가 넘는다. 만돌린, 아코디언, 멜로디언처럼 너무나 친숙하지만 일반 그룹이나 밴드에서는 보기 드문 악기부터, 아일랜드 피리인 아이리시 휘슬, 인도의 전통 악기인 시타르, 그리고 중동의 다부카, 아프리카의 씨앗껍질 악기, 그리스의 부주키까지, 세계 각국의 민속 악기가 만나 '두번째달' 만의 독특한 음악 세계를 만들어 낸다.

'두번째달' 의 여행은 우리 음악계에 던지는 하나의 도전장이다.
고전음악과 대중음악, 예술성과 상업성의 경계가 분명한 우리 음악계에서 민속음악을 바탕으로 한 연주 음악만으로 대중들을 사로잡은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음악 시장을 좌지우지 해온 미디어와 제작사의 횡포에 대한 작은 반란이며, 청중들은 이들의 반란에 환호로 답하고 있다. '두번째달' 의 여행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두번째달이라는 상상력의 모태처럼, 그들은 대중성과 예술성을 아우르는 새로운 음악을 끝없이 찾아가야 한다.

새로운 감성과 음악 위한 상상력의 여행, 「두번째달」

민속 음악과 함께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는 상상력이다. '두번째달' 이라는 다소 낭만적인 그룹명은, 그들의 상상력을 드러내고 있다.

'태초의 우주에 빅뱅이 있었고, 이로 인해 우주가 형성됐다. 만약 이때, 지구 주위의 농도나 온도의 차이가 조금만 달랐어도, 지구는 두 개의 위성을 가졌을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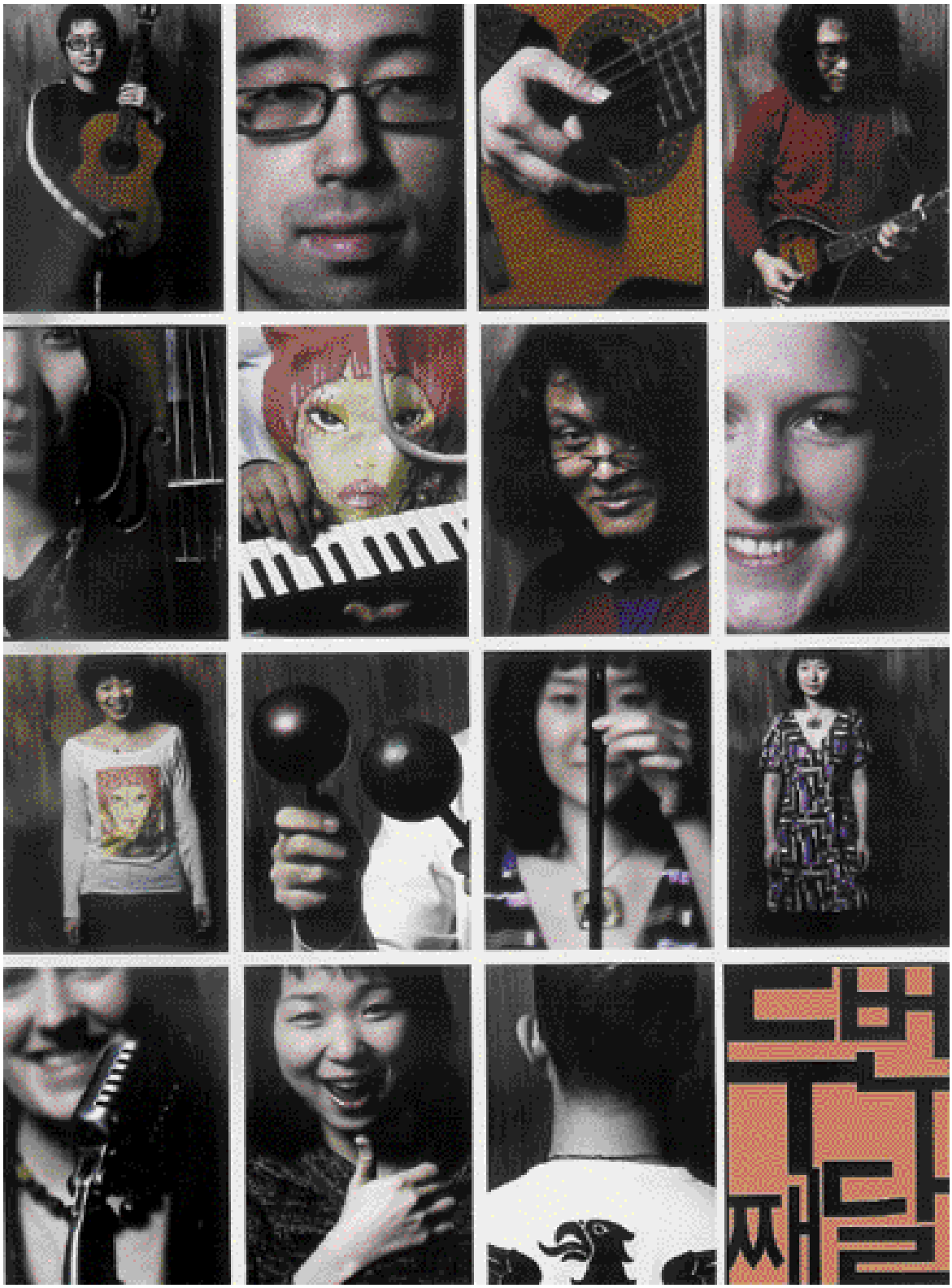
에스닉 퓨전 밴드 '두번째달' 의 상상력은 여기서 출발한다.

"달이 두 개였다면, 해와 달, 흑과 백, 음과 양이라는 이분법적인 편협함에서 인류는 훨씬 자유롭지 않았을까요?"

이 이분법에 관한 질문은 곧 음악의 본질에 관한 질문과 맞닿아 있다. 고전음악과 대중음악, 예술성과 상업성, 메이저와 마이너라는 일도양단의 경계로 음악을 규정짓는 현실에서, '두번째달' 은 새로운 감성,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려 하는 것이다.

그들의 첫번째 앨범 「두번째달」은 바로 상상력의 여행이다. 첫 곡 '여행의 시작' 을 출발로, 드라마 〈아일랜드〉의 메인 테마로 귀에 익은 '서쪽 하늘에', 중동의 사막을 떠올리는 '이클립스 오브 더 레드 문', 남미의 탱고 리듬에 바이올린 선율이 담긴 '고양이 효과', 5음계 위주의 단조로 이뤄져 한국적인 느낌이 드는 '얼음연못' 으로 이어지면서 듣는 이들을 여행에 동참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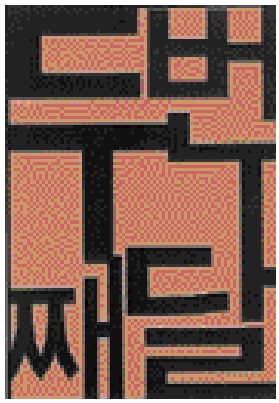
"우리의 음악을 들으면 이국적인 영상이 떠오른다고 하더군요. 우리를 포함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가보지 못한 장


두번째달

소를 음악으로나마 접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음악을 하게 됐어요. 음악을 통해서라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미지의 장소라도 갈 수 있을 테니까요."

'두번째달' 의 여행은 우리 음악계에 던지는 하나의 도전장이다.

고전음악과 대중음악, 예술성과 상업성의 경계가 분명한 우리 음악계에서 민속음악을 바탕으로 한 연주 음악만으로 대중들을 사로잡은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음악 시장을 좌지우지해온 미디어와 제작사의 횡포에 대한 작은 반란이며, 청중들은 이들의 반란에 환호로 답하고 있다.



그러나 '두번째달' 은 이런 성공 앞에서 겸허해한다.

"드라마나 영화, CF가 없었다면 우리 음악이 과연 알려졌을까요? 우리로서는 운이 좋았던 것이지만, 음악 자체로 승부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의 음악을 대중들이 좋아해주시니, 앞으로 연주음악에 대한 관심들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이 관심을 가져줄 때, 구조적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테니까요. 그런 점에서 저희 어깨가 무겁기도 합니다. 그동안은 음악이 좋아서 그저 즐겁게 연주했는데, 앞으로는 일반인들과 교감을 나눠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멤버 7명 전원이 모두 작사, 작곡 및 뛰어난 연주 실력을 가지고 있는 밴드. 이들은 국내보다 일본 월드뮤직 시장으로 먼저 수출될 만큼 탄탄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공연이 없는 날은 각자 흩어져 생업에 종사하다가, 밤에 만나 연습에 몰입한다. 이것이 우리 음악계의 현실이다. 하지만 이들은 좌절하지 않는다.

두번째달의 귀환은 국악의 완벽한 체화와 창작

이들의 음악적 재능과 노력은 2006년 한국대중음악상 수상으로 보답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의 음악적 좌표는 과연 대중음악에 있을까? 일반인들은 과연 대중음악과 예술음악으로 양분된 현재의 음악계에 만족하고 있을까? 한국대중음악상이 한 해의 대중음악계를 정리하는 대표적인 시상식이라면, 어쩌면 이들의 수상은, 우리 대중들이야말로 이런 양분화된 음악에 식상하고 새로운 음악의 출현을 갈구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두번째달' 의 여행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두번째달이라는 상상력의 모태처럼, 그들은 대중성과 예술성을 아우르는 새로운 음악을 끝없이 찾아가야 한다.

그 궁극적인 도달점은 어쩌면 각 민속 음악을 통해 지구를 한 바퀴 돈 뒤 우리 음악으로의 귀환일지도 모른다.

"사실 우리 민속 음악에는 아직 도전을 못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궁〉의 사운드 트랙을 맡기는 했지만, 그조차도 우리 민속 음악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 자신의 것을 모른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지만 그보다는 어설프게 우리 것을 흉내 내는 것이 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에스닉 퓨전 그룹으로 시작했으니, 당연히 우리 민속 음악을 녹여내야겠지만, 완벽하지 않다면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달' 은 여러 차례 젊은 국악인들과의 협연을 통해 우리 민속 음악에 접근하고 있다. 국악의 완벽한 체화와 그것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음악의 창작. 그것이 새로운 음악의 지평을 연 '두번째달' 의 궁극적 목표다. 그래서 '두번째달' 이 세계적인 그룹으로 성장했을 때 즈음에는, 그들의 무대를 통해 실현되는 국악의 세계화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